

배포일시	2021. 8. 5.(목) 조간 * 인터넷 2021. 8. 4.(수) 12:00 이후 / 총 7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	과 장 박종일	044-202-8850
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사무관 이철호	044-202-8904
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단 장 김형석	052-703-0611
	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	차 장 이중곤	052-703-061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^{끼임위험}, 건설업^{추락위험} 일제점검(7.28.(수)) 결과 발표

- ☐ 3,200여 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 일제점검 실시
제조업은 58%, 건설현장은 77%가 안전조치 미비
 - 제조업은 위험기계·기구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50%
 - 건설현장은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가 53%
- ☐ 8월 현장점검의 날은 예고 없는 불시점검 추진

- ☐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지난 7월 28일(수) 3대 안전조치*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.

* (3대 안전조치) ①추락사고 예방수칙, ②끼임사고 예방수칙, ③개인보호구 착용

-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총 900여 개의 점검팀(1800여 명, 2인 1조)과 긴급 자동차(patrol car) 400여 대가 투입되어 전국 3,200여 개 현장을 일제 점검했으며
- 전국 민간 재해예방기관 직원 800여 명도 2,2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힘을 보탰다.

- 900여 개의 점검팀은 제조업(기타업종 포함)에 대해서는 끼임 위험요인을, 건설업에 대해서는 추락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3,200여 개 산업현장 중 2,100여 곳(64.2%)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.

[점검 현황(지적 사업장 수 현황 포함)]

점검결과 (단위: 개소)		끼임 위험요인						추락 위험요인			
		제조업					기타* 업종	건설업			
		소계	10인 미만	10인~ 30인	30인~ 50인	50인 이상		소계	3억 미만	3억~ 10억	10억 이상
점검 사업장수	3,264	2,106 (64.5%)	865	1,032	155	54	108 (3.3%)	1,050 (32.2%)	293	402	355
지적 사업장수 (지적률**)	2,094 (64.2%)	1,233 (58.5%)	494	623	89	27	56 (51.9%)	805 (76.7%)	206	325	274

* (기타 업종) 조선업, 철강업 등 ** 지적률=(지적 사업장수÷점검 사업장수) ×100

-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.8%(925개소),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1.6%(36개소) 수준인 반면 건설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23.3%(245개소), 10건 이상 지적된 곳이 3.9%(41개소)이다.
 - 또한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(34.1%, 1,043건)이 제조업(11.5%, 381건)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
-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전체 점검대상(3,264개소) 중 347개소(10.6%)에서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조치 하였다.

-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두 차례의 일제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”라고 하면서
 - “8월에는 예고 없는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행·사법 조치를 확행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 “정부는 제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의 유해·위험 시설개선 비용지원 및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예산 459억원을 확보하였다”라며
 - “앞으로도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라고 약속했다.

- 붙임 1.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(7.28.(수)) 운영 결과 분석 1부.
2. 산재예방분야 '21년 제2차 추경사업 개요 1부. 끝.

  총계표시  위험물관리  금연관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(☎044-202-890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1 제조업 등: 끼임 위험요인 점검 결과

□ **(지적 사업장 수)** 점검대상 총 2,214개소 중 1,289개소(58.2%)에서 위반사항 확인

○ 덮개·울 등 방호조치 미이행은 490개소(22.1%),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은 402개소(18.2%), 개인보호구 미착용은 275개소(12.4%) 順

점검대상	지적 사업장수 (총계)	지적 사업장 수(단위: 개소)								
		방호장치 및 인증·검사	방호장치 기능유지	방호장치 임의해체	방호조치 (덮개·울)	동력차단 장치	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	기계·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	지게차	개인 보호구
2,214	1,289	187 (8.4%)	185 (8.4%)	248 (11.2%)	490 (22.1%)	68 (3.1%)	234 (10.6%)	151 (6.8%)	402 (18.2%)	275 (12.4%)

* 위반사항 별 지적 사업장 수는 중복

□ **(지적 건수)** 안전조치가 미흡한 1,289개소에서 3,325건을 시정요청

○ 방호조치(덮개·울 등)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(823건),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(512건),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 실시(470건) 順

지적 사업장수 (총계)	지적 건수(단위: 건)									
	소계	방호장치 및 인증·검사	방호장치 기능유지	방호장치 임의해체	방호조치 (덮개·울)	동력차단 장치	정비 시 조치절차 수립	기계·기구 이상 시 조치절차	지게차	개인 보호구
1,289	3,325 (100%)	470 (14.1%)	276 (8.3%)	358 (10.8%)	823 (24.8%)	99 (3.0%)	241 (7.2%)	165 (5.0%)	512 (15.4%)	381 (11.5%)

* (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) ① 덮개, 울 등 방호장치 미설치(823건, 24.8%), ② 위험기계·기구 인증·검사 미 실시(470건, 14.1%), ③ 작업 중 방호장치 임의 해체(358건, 10.8%)

□ **(감독 등 전환)**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61개 사업장은 패트럴 점검(48개소), 산업안전보건감독(13개소)으로 전환하여 재확인

2 건설업: 추락 위험요인 점검 결과

- **(지적 현장 수)** 점검대상 총 1,050개소 중 805개소(76.7%)에서 위반사항 확인
- 안전난간 미설치 572개소(54.5%), 개인보호구 미착용 443개소(42.2%), 작업발판 미설치 322개소(30.7%) 順

점검 대상	지적 현장수 (총계)	지적 현장 수(단위: 개소)						
		작업 발판	안전 난간	개구부 덮개	방망·안전대	지붕 추락 예방조치	달비계 안전조치	개인 보호구
1,050	805	322 (30.7%)	572 (54.5%)	111 (10.6%)	119 (11.3%)	63 (6.0%)	14 (1.3%)	443 (42.2%)

* 위반사항 별 지적 현장 수는 중복

- **(지적 건수)** 안전조치가 미흡한 805개소에서 3,062건을 시정요청
- 안전난간 미설치 관련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(1,106건), 개인보호구 미착용(1,043건), 작업발판 미설치(504건) 順

지적 현장수 (총계)	지적 건수(단위: 건)							
	소계	작업 발판	안전 난간	개구부 덮개	방망·안전대	지붕 추락 예방조치	달비계 안전조치	개인 보호구
805	3,062 (100%)	504 (16.5%)	1,106 (36.1%)	160 (5.2%)	144 (4.7%)	86 (2.8%)	19 (0.6%)	1,043 (34.1%)

- **(감독 등 전환)** 안전조치가 특히 불량한 48개 사업장은 패트룰 점검(43개소), 산업안전보건감독(5개소)으로 전환하여 재확인

3 건설·제조업 등: 점검 결과 비교

- 업종별 지적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높은 수준

[점검 결과에 따른 업종별 지적 현황]

구 분	계	제조업 등	건설 현장
점검 대상 수	3,264개소	2,214개소	1,050개소
지적사항 없음	1,170개소(35.8%)	925개소(41.8%)	245개소(23.3%)
지적사항 1~3건	1,541개소(47.2%)	1,054개소(47.6%)	487개소(46.4%)
지적사항 4~6건	359개소(11.0%)	169개소 (7.6%)	190개소(18.1%)
지적사항 7~9건	117개소 (3.6%)	30개소 (1.4%)	87개소 (8.3%)
지적사항 10건 이상	77개소 (2.4%)	36개소 (1.6%)	41개소 (3.9%)
개인보호구 미착용 지적 건수	-	381건(11.5%)	1,043건(34.1%)

4 폭염: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점검 결과

- 점검대상 총 3,264개소 중 347개소(10.6%)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 (①물, ②그늘, ③휴식 제공)에 대한 위반사항 확인

- 위반사항이 확인된 347개소 중 건설업은 191개소(55.0%), 제조업 등은 156개소(45.0%) 수준

전체 점검 대상(단위: 개소)		제조업 등(단위: 개소)		건설업(단위: 개소)	
	위반사업장 수		위반사업장 수		위반사업장수
3,264	347(10.6%)	2,214	156(7.0%)	1,050	191(18.2%)

□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

- (사업내용)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사고사망 등 유해·위험요인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* 지원

* (지원조건 / 한도)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50~70% / 사업장당 최대 3,000만원

- (추경 반영내용) 제조·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(끼임예방장치, 시스템비계 등) 지원 확대

- <본예산> 943억원, 1.2만개소 → <2차추경> +282억원, +3,300개소

□ 업종별 재해예방(안전보건지킴이, 사고성재해 집중관리)

- (사업내용)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고,

- 고위험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채용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점검 추진

- (추경 반영내용) 소규모건설현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확대^①, 안전보건지킴이 증원·업종 확대^②로 순회점검 강화

* ① <본예산> 361억원, 17만개소(41만회) → <2차추경> +125억원, +1만개소(+4만회)

② <본예산> 122억원, 400명 → <2차추경> +52억원, +400명(4개월)

- (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) 안전보건공단에서 업종별 400명의 지킴이를 직접 채용, 27개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시행

* 사업대상 확대 : 기존 건설업·조선업 외 제조업·서비스업 추가

- (사고성재해예방(위탁))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로 선정한 업종별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에 위탁 시행

* 1억 미만 건설현장 밀착관리 강화(10,000개소 × 2개월 × 2회)